미나 타벤바움과 에델 베네기.

이 영화는 이 두 여자의 삶과 우정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7세에 처음만나 몽마르뜨 언덕 벤치에 앉아 '모네'의 그림을 모방한 미나의 그림을 보며 담소한다. 16세때에도 그 벤취에 앉아 관념적 사랑을 얘기하는 페미니스트가 되어 있으며 30세, 그들은 더 이상 공통점이 없었고 미나의 자살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들은 복합적인 이미지와 성격의 소유자이다.

시간과 함께 이들은 성장해왔고 우정의 형태도 변했다.

미나는 '베티 데이비스'의 도발성을, 에델은 '적과 흑'의 줄리앙 소렐의 우수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고 그녀들과 그녀들의 이상적 자아상까지

미나 타벤바움 —

두 여인의 우정과 성장사

영화에 형상화되어 갈등을 하게 된다.

파노라마식 촬영 및 해설자의 등장등 기존의 영화기술이 창조적으로 흡수되어 독특한 영상미를 자아낸 것도 이 영화의 특징이다.

모스크바 필하모닉의 연주는 등장인물의 심리상태를 인상적으로 이끌어 간다.

미리보는 영화 2편

'빅', '사랑의 기적', '그들만의 리그' 등을 통해 한국 관객에게 친숙해진 미국의 여류 감독 '페니 마샬'의 새 영화 '르네상스 맨'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영화는 휴머니즘, 적절한 로맨스와 코믹함, 행복한 결말로 귀결되는 미국 영화의 정형의 하나로 보여진다.

주인공 '빌라고'는 이미 '장미의 전쟁'에서 낯익은 배우 '대니 드 비토'가 맡았으며, 그 역시 감독으로서도 이름이 높은 연기파 배우이다.

'빌라고'는 프린스턴을 나와 광고업에 종사하여 세상을 부족함없이 평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문제점은 가치있는 일이라곤 해본적이 없고 용기도 없다는 것이다. 심한 자괴감에 빠진 그는 자신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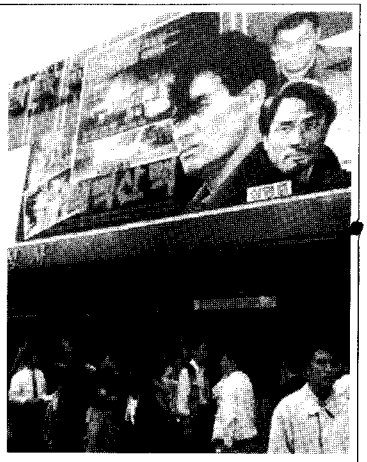
그후 육군사관학교의 영어교관으로서 군대의 낙제생들에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가르친다. 그들의 인식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보며 빌라고는 생의 보람과 의의를 비로서 느끼게 된다.

죽은시인의 사회가 연상되는 영화이다.

르네상스맨 —

'죽은 시인의 사회'같은 휴머니즘

대중속에 꽃 피울 문화 민주주의



◇ 문예진흥기금의 정의와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박 승 현
〈민족예술인총연합 · 기획부장〉

글을 시작하며

영화 한편을 볼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미술관이나 심지어는 늪에 들어갈 때에도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내고 들어간다. 하지만 입장객들은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어떠한 근거 하에서 왜 내야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쓰여져서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게 되는지, 심지어는 자신이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을 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글은 '문예진흥기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94년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데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장되고 각 분야의 개혁이 진척되면서 20여년 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침묵한 채 진행되어왔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도 '문화발전 5개년 계획'등 다양한 문화정책을 제기해 나가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정부가 표방하는 문화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원은 민간예술단체와 직접 만나 문화예술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예정책과 현실적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문예진흥원의 94년도 중점방향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거하여 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74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문예진흥기금 모금은 73년 7월11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진흥원은 모금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연, 고공, 능, 박물관, 미술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적 및 사적지를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을 할 수 있다.

문예진흥기금은 조세의 형태가 아니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모금과 기부의 형태를 위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조성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된 문예진흥기금이 문화와 예술계에 투입되는 순환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계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국민문화의 향상, 문화환경의 개선으로 환원돼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는 순환시스템을 이루게 된다'(문예진흥원 20년사 107쪽). 그러므로 문예진흥사업을 위해 조달되고 투자되는 문예진흥기금은 민간문예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해야할 기금인 것이다.

문예진흥원의 사업은 그동안 '예술창작활동 지원', '국제문화교류활동 지원', '문화촉매활동', '조사연구 및 교육, 시설운영사업',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의 5가지 축으로 전행되어 왔다. 94년도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 즈음하여 갑자기 이름을 바꾼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등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문예진흥원에서 연극인들의 기대가 크고 연극 활성화에 기여할 협회의 '연극관객 개발지원'('사랑의 연극잔치')에서조차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한겨레신문 94년 6월 12일자 9면). 이렇듯 창작진흥부문 중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심의절차가 무시되는 '고정형' 지원사업은 문예진흥원이 94년도 문예진흥사업 중점방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예술창작 의욕고취'라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

둘째, 문화예술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접목되는 미래를 향한 문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문예진흥원 94년도 계획에는 '예술자료센터의 접중육성과 기업메세나운동전개'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연구나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항목이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의 첫번째 정책기조가 '규제에서 자유로!' 이듯이 차제에 문화발전 연구소로 지원되었던 문예진흥기금예산(94년도 7억6천만원)을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금으로 확보하는동 장기적 발전을 위한 문화환경조성에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책사업 방향부제의 극복

문예진흥원의 중점방향에서 지원사업의 항목을 검토해보면, 창작진흥이나 문화촉매는 잘해 왔으나 주제중심의 정책사업 지원방향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도 진흥기금 예산중 47.4%가 '문화체육부 정책사업예산'으로 책정되었다(문예진흥원 노보 제55호 4쪽), 여기서 말하는 '문화체육부 정책사업'이란 형식적으로 문예진흥원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운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나 실제로는 이미 문화체육부에 의해 그 지원대상단체가 확정되어 있는

국민 모금통한 문화 예술계의 활성화가 취지
다양성·지역성 기초한 '문화촉매운동' 필요

그러면 94년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진정한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기반 조성

첫째, '예술창작 분야 중점지원'이 과연 '창작의욕 고취'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예진흥원의 지원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각 장르의 창작진흥 부분이다. 이것은 94년도에 영화의 국제교류를 포함하여 약 1백68억원(총 지원액수의 61%)에 이른다. 하지만 이미 영화진흥공사의 예산으로 넘겨지는 80억원(2.9%)을 제외하고나면, 문예진흥원이 창작진흥 부분이라고 밝힌 부분은 63억원에 그쳐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그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지원사업중에서도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는 단순형 지원사업이 15.8%이고 서울연극제나 서울무용제 등 지원심의는 형식적이고 실제는 연례적으로 지원이 결정되어 있는 고정형 지원사업이 42.3%이다.' 문제는 '고정형' 지원사업이 제도권 안팎에서 그 내용과 운영 등 수없이 많은 예진흥원이 영화진흥공사에 80억원(94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필름영상성 국한되고 있을 뿐이다.

셋째, 문화정책과 이의 구체적 실천연구 사업에 대한 지원항목이 없다는 점이다. 즉 문화정책 연구사업의 민간참여 뿐만 아니라 각종 창작실천 현장에서의 성과가 연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단위의 연구가 가지는 효과에는 실천 현장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는 것과 다양한 예술관의 수용이라는 측면, 그리고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사실 지난 독재시기에 민간단위의 연구사업과 다양한 예술관에 입각한 구체적 실천연구가 원활하게 반영되기에는 제약조건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드러나고 창조적 대응이 절실해지는 문화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기에는 문화발전 방향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민간문예단체의 정책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지원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이번에 문화발전연구소가 재단법인 문화정책개발원으로 독립하였다. 문제부 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책의 해'사업지원으로 10억원(93년도), '국악의 해' 사업지원으로 10억원(94년도)등이다.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문예진흥원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할 문제는 단순한 형식상의 자율성이 아니라 내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예진흥원이 장기적인 문화발전을 모색할 정책사업을 필친다면 '통일문화예술사업'등을 주요사안항목 중의 하나로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문예진흥원은 '(순수)예술창작분야 중점지원'이라는 문예진흥원 지원원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문체부 정책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21세기를 맞이할 정책사업을 계획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문예진흥원이 '문체부로 부터의 자율성 보장'만을 주장한다면 '내용없는 형식적 요구'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90년대 새문화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모든국민을 대진흥원에서는 문화촉매운동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촉매운동이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천으로 조직되려면 대중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실험과 개발을 통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문화 5개년계획에서 최고의 정책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곁에 있고 함께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를 실행한다는 것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촉매운동의 실행에 있어 절실한 것은 현실의 상황과 대중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실험과 개발을 통하여 대중 스스로 내용을 풍부하게 실현시켜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촉매운동이 실행과정에 있어 더욱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만이 아니라 총 지원된 액수의 8% 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문예진흥원은 94년도 문예사업계획의 중점방향 중 마지막 항목으로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지원행정체계' 정립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전체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다.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목정의 문제를 기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간주하고 검토하는 단계(의제설정)로부터 시작하여 그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지 설정한(목표설정) 협마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떤 유형의 지원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사업결정),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집행) 평가하는 과정이다'('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실태에 관하여' 77p)

사실 필자가 앞에서 제기했던 여러가지 문제점은 대부분 '의제설정'과 '목표설정'의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이다. 그런데 문예진흥원이 밝힌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지원행정체계 정립'의 내용에는 '의제설정'이나 '목표설정'의 문제는 빠져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결정에 앞서 목표설정의 단계가 생략되거나 미흡하며, 의제설정과정 및 사업결정 과정에서 수혜대상의 의견수렴과정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식적이며 비 민주적'이라는 지적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한편 문예진흥원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심의제도는 어떠한가? 지원심의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역시 심의의원 향상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다. 94년도에 들어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여러가지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전반적인 구성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계에 있어서도 지난 시기의 구태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앞서서 개척해 나가는 모범을 창출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인의 근본은
知·德·體

조선후기의 미인도

자연 그대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 풀무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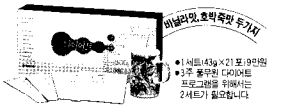
캠퍼스는 知와 德을 가꾸고
풀무원은 건강한 體를 가꿉니다.

지성과 인격을 연마하는 것은 젊음의 덕목.
여기 여러분이 갖춰야 할 또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드는 법!
풀무원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 풀무원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칼로리는 낮추되 필수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른 다이어트의 길 — 풀무원 다이어트 3주프로그램으로
건강하고 날씬하게! 지금 시작하세요.

풀무원 다이어트 전화
080-022-0707 (수신자요금 부담전화)
건강레이디가 전달해 드립니다.



• 1세트(43g×21포)9만원
• 3주 풀무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2세트가 필요합니다.

Pulmuone